



## 경기도 양평군의 환경미술

이 환  
환경설치미술가

환경예술을 한다는 작가로서 나는 수도권에 살면서 느끼는 도시의 권태로움으로 인해 작품의 소재가 빈곤해짐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때로는 도심의 이탈을 통해 특별한 작업을 꿈꾸게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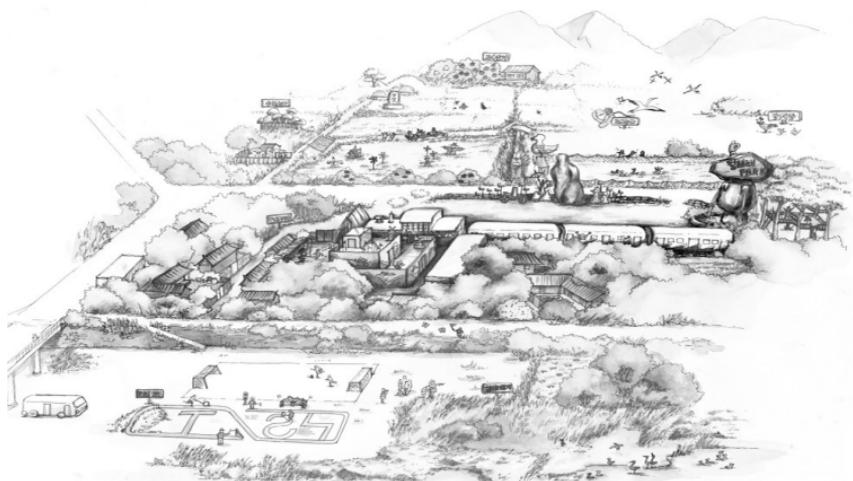
나는 환경설치미술가로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 환경테마공간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 연장선상에서 난개발의 사례를 찾던 중, 나는 지금의 공간에서 서툰, 초록환경이야기를 탄생시키게 된다. 오염원이었던 공장들로 인해 주변이 온통 난개발되었던 이곳은 상수원의 특별 부위면서 친환경적인 농촌트러스트가 절실한 공간이었다. 또한 내가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트러스트 의지를 갖게 한 곳이기도 하다. 이 글은 농촌환경 난장에서 성장으로, 희생에서 희생의 공간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어느 고물예술가의 희망만이 아닌 모두가 같이 이뤄야 할 꿈으로 바뀌어가는 초록환경이야기를 서툰 아이덴티티로서 기술하는 바이다.

## 1. 녹색여행 초록환경이야기

급격한 산업정보화 물질 속에 비대해져가는 도시환경은 우리의 청소년에게서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환경문화체험학습의 방안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상수원 보호 등으로 대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양평군으로의 아주 특별한 청소년 환경문화체험여행을 소개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변의 환경파괴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더라도 변화의 폭을 그리 적지 않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파괴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때 이에 대해 진지하고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은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녹색여행 초록환경이야기는 청소년에서 장년층에 이르는 미래 환경파수꾼인 리틀 광개토에게 환경과 문화를 접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자연과 인간과의 단절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시키며 환경오염에 의한 경각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여행의 의도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아이들로부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여행에서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과 환경여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양평군미술관, 고구려 테마전시 및 재생조형전시관과 같은 ‘환경문화체험’, 들길산책과 각종 자연탐방이 포함된 ‘자연학습체험’, 그리고 환경농업현장과 환경농산물전시장, 각종 농업 및 건강 특약초 탐방이 어우러진 ‘건강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문화학습을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환경상식과 환경생태를 터득하게 된다. 또한 상수원 식수보호지역을 실제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림 1> '녹색여행' 캠프 전경

맑은 물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푸른 한강 지키기에 연대·동참하여 자연보호는 물론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도 본 행사를 진행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 2. 녹색여행의 취지 및 운영프로그램

자연은 인간생활의 터전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개발만을 강조한 나머지 도심은 물론이고 도심 주변의 환경오염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성장기에 있는 민감한 청소년들은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삭막하고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우리 미래의 역군임을 생각해볼 때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직접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념을 정립시켜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창조적이고 교육적인 자연학습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으로 되돌

아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 새로운 청소년 환경문화의 체험장 마련
-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
- 환경교육 메카로서 자리매김
- 다양한 환경문화예술체험 제공
- 환경문화 인프라 구축

본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환경문화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될 것이며, 국내외의 환경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양평군을 새로운 자연환경문화벨리로 형성하여 새로운 자연환경문화체험과 접목된 예술환경의 조성을 통해 인간 및 생명의 중요성,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일깨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체험인 ‘녹색여행’을 테마로 한 문화자원을 개발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에도 환경문화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되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단발적인 행사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 투여된 인력과 장비, 예산에 있어서 그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기획안은 국내 환경문화의 참된 모습과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

### 3. 환경문화체험

녹색여행의 첫발을 내딛는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의 학생들은 한 시간 이내에 꿈과 희망의 청정환경구역인 양평군에 도착하게 된다. 관광버스 100대 이상이 한꺼번에 집결할 수 있는 양평 공설운동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우선 양평문화예술원 주변과 고공 원두막에서 대자연을 전망하는

순서를 갖는다. 그후 재생조형열차 내에서 친환경 도시락, 즉 몸에 좋은 맞춤시골음식과 전통음료를 시식하고 본격적인 환경문화체험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문화체험관

-환경미술품 감상: 산업폐기물, 재활용품을 이용, 환경의 중요성을 주제로 구성된 환경예술품 감상

-재생장난감 만들기: 재활용품 이용

-알라딘 보물예술창고

-고구려 테마관: 고구려 여행기

-옛날물건 전시관

-시청각실: 환경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상영

-세미나실: 환경세미나 및 오리엔테이션

-양평미술관: 청소년 눈높이 기획전

알라딘의 보물예술창고에서는 문화예술의 무한한 상상력을 키움과 동시에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람개비 등 자원재생장난감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지금은 추억 속의 풍경이 된 빵튀기 기계의 정겨운 맛과 정서도 느껴본다. 보물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어색한 고물과 버려진 물건들을 이용해서 직접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재생조형작품들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공장이었던 재생조형박물관은 공해의 주범으로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그 공간을 교화하고 예술로 승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연을 지키는 것이 환경의식이라는 1차적인 생각에서 발전하여 버려진 공간이나 이미 오염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자원을 아끼고 더이상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다. 또한 체험의 시간 동안 만들어낸 재생장난감이나 조형물들을 전시하여 그것들이 이루어내는 하모니를 직접 느끼고 여러 개의 조형이 모였을 때의

아름다움을 통해 협동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재생조형박물관 실내외에 전시된 재생조형미술품과 민속골동품 및 지역민속품 등 옛날 물건을 감상하고 고구려 테마관에서는 옛 선조들의 아껴 쓰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별도로 인근 흙도에 체험장에서는 각자가 직접 도기를 빚어보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양평미술관에서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작품은 물론 청소년들이 공모한 환경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청소년 환경 눈높이 미술기획전을 열고 전 세계의 다양한 민속과 문화생태가 담겨 있는 환경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환경문화와 관련된 문화관을 상설하고 연1회 세계청소년 환경문화영화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실은 청소년단체나 환경단체에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지식도 함께 배양한다.

#### 4. 자연학습체험

- 환경생태공원
- 허수아비 예술제
- 계절별 들길 산책
- 전통놀이
- 환경사생대회
- 청정 수질보호구역 탐방
- 친환경농업: 오리농장 탐방

자연학습체험은 도심의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른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농촌의 절기가 얼마나 과학적인가에 대한 학습을 하여 농촌의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



<그림 2> 친환경농업 체험학습

을 심어준다. 계절에 따른 학습프로그램을 구성, 반딧불이 관찰, 메뚜기 관찰, 철새 도래지 탐방, 과일에 내 이름 붙이기 등을 통해 단발적 학습이 아닌 계절별 자연과학을 실시하여 관찰일기 공모전 등을 실시한다. 이는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화한 장기적 자연학습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자연학습체험 코스는 강둑, 들길을 거닐며 계절별로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청정수질보호구역으로서 한강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직접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허수아비 예술제와 굴렁쇠 달리기, 오리농사꾼과 함께 달리기 대회, 제기차기, 농악놀이, 연날리기, 썰매타기 등 계절별 약식 체육활동을 통해 전통놀이의 우수성과 협동심을 배양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자연에 대해 보고 느낀 소감을 글과 그림으로 발표하는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자연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린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잘못된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넓혀주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양평이 자랑하는 친환경농업의 현장을 탐방해서 오리를 이용하는 유기농법의 효용과 자연과 어우러져 함께 공생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고자 한다.

## 5. 건강문화체험 코스

- 친환경 식사: 산지무공해 농산물
- 환경농업 홍보관: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 장애인 환경복지단: 청소년과 장애학생들의 사랑 나눔 실현
- 의료건강 강좌

건강문화체험코스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과 심신의 안정에 목적을 둔 이색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우리 고장에서 나는 각종 무공해 농산물의 발아와 성장 그리고 청정농산물 유통과정을 소개하고 익히지 않은 농산물의 약식 도시락을 제공하여 가정으로 돌아가 자연생태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또한 아름다운 휴양림 속에서 전문의가 강의하는 예방회복의학 등 수준 높은 의료건강에 대한 강좌를 들어보고 고산지 특약초 단지와 고랭지 채소, 유기농산물의 집합소인 환경농업 홍보관을 탐방해서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들과 장애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나눔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6. 환경문화 및 예술교육의 공간

### 1) 청소년 예술동아리 육성

현재 청소년문화의 대부분은 현란한 대중문화 속에 있다. 화려한 조명과 만들어진 문화의 수동적 체험에서 선택의 폭은 극히 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디지털 문명에서 오는 정보의 빠른 접근 속에 우리의 청소년은 방황하고 있다. 충분한 사고와 창조적 능력은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질

높은 문화의식의 부재를 가져오고 있다. 반대로 예술과 문화라는 단어는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가치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청소년은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서구의 문화와 대중문화에서 형성된 것에서부터 일부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등 실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대중매체를 관람하고 그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녹색여행에서는 자연을 무대로 한 청소년문화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는 활성화시켜주고 잘못된 길은 수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청소년 예술동아리를 모집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정한 교육자를 육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각자 활동하는 분야는 존중해주고 세미나, 발표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능동적 인간상을 구현하며 미래의 역군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녹색여행에서는 양평에 있는 세미나실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청소년 예술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기존 작가와의 연계를 추진중이다. 모든 예술의 근원인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을 갖춘 문화는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녹색여행은 그러한 기본을 일깨워주고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다.

## 2) 청소년 그린 아트 캠프(Green Art Camp)

다양한 청소년 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최하여 환경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음악, 영상(영화), 미술전시 등의 복합적 예술제를 통해 상호 정보의 교환과 발전을 도모한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음성적인 것이 아닌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건전한 문화로 승화시킨다. 또한 연중 다양한 형태의 기획전-민속전시, 역

사전, 생태전시회—을 양평미술관과 연계하여 양평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인다.

### 3) 환경교육

녹색여행의 모든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 문화, 환경을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체험학습하여 다양한 감동을 느끼도록 한다. 나아가 국내의 환경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외 선진문화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생명의 근원인 물, 그리고 도시의 식수인 한강의 ‘물사랑’ 캠페인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녹색여행 주변 농민과의 돈독한 관계 형성 속에 좀더 자연스러운 농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농민에게는 유기농을 통한 실질적 이익의 창구 역할을 한다. 녹색여행은 환경교육에 있어 농촌과 도시, 자연과 문명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체계를 갖추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직접 체험학습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 7. ‘희망의 나무’ 예술공원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식의 차원을 지나 인류의 희망이자 생명의 근원을 향한 바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작게는 우리의 일상에서 찾고 크게는 세계 평화지도자들의 메시지를 희망의 나무라는 특수조형물에 달아 희망에 의해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관람객에게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희망의 나무’ 예술공원의 취지이다.

조형물의 진행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이벤트와 볼거리의 제공으로 환경에 대한 친근감, 즐거움, 경이로움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 부응을 통해 청정환경예술 및 산업육성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며, 특별한 체험과 감동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응집하고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일회성, 소모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환경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희망의 나무’는 온라인, 출판, 오프라인, 교육, 연예, 이벤트, 관광 등 모든 분야로의 사업 전개가 가능한 예술의 총체적 집약체로서 앞서 설명한 녹색여행이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체험학습공간이라면 희망의 나무는 이들의 활동과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실천의 무대이다.

이렇듯 초록환경이야기가 있는 녹색여행과 ‘희망의 나무’를 통해 자연 환경과 문화,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청소년시절부터 배양시키는 것은 물론 선생님들에게는 참선생과 참지도자로서의 환경교육 마인드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을 배우고 자연과 동화하는 미래의 주인공들, 즉 새로운 지도자상을 스스로에게 심어주도록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신념 있는 여러 단체나 모임, 세미나, 학술활동 등에 열린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꿈과 사랑과 용기를 얻는 일, 그래서 올바르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은 아이들의 일생에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환 ehwanart@hanmail.com

녹색여행 <http://www.greenartcamp.com>